

마음의 전일성

어윈 슈뢰딩거(Erwin Schroedinger) / 박인수(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파동방정식을 도출해낸 어윈 슈뢰딩거, 철저히 논리적이었던 한 위대한 물리학자의 세계와, 신 그리고 자아를 바라보는 직관적 영감은 논리를 뛰어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공동참조에 대해서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현실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의 개별적 자아를 인정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세계는 하나인데 마음은 수억이라는 산술적 모순이... 슈뢰딩거는 단언한다. 마음은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편집자 주)

왜 우리의 과학적 세계상 속에서는 감각과 지각이 있고 사고 작용을 하는 자아(ego)를 만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아 자체가 바로 세계상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전체와 동일하므로 그것이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산술적인 패러독스에 부딪히게 된다. 즉, 이렇게 의식하는 자아는 무수히 많이 보이지만 세계는 단 하나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개념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개별 의식들의 여러 영역은 부분적으로 겹치며 그들이 모두 겹쳐지는 공통 영역이 '우리 주위의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게 된다. 곧 이런 물음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나의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정말 같은 것인가?" "지각을 거쳐 우리 각자에게 투사된 세계의 영상과 구별되는 '하나의 진실한 세계'가 존재할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계의 영상들이 진실한 세계와 유사한 것인가, 아니면 세계 '그 자체'는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와 아주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들은 소박한 것이지만, 내 견해로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대답이 없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이율배반(모순)인데, 나는 그것을 산술적인 패러독스라 부른다. 수많은 의식하는 자아가 있고, 그들의 정신적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숫자상의 패러독스를 해결하면 앞서 말한 모든 의문들은 사라질 것이고, 감히 말하건대, 그것들이 영터리 문제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패러독스를 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고대 그리스의 사고방식, 그래서 철저히 '서구적인' 사고에 근거한)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어이없게 보일 것이다. 해결책 중 하나는 라이프니츠(Leibniz)의 두려울 만치 엄청난 확실인 모나드(monad)론에서 나타나는 증식 이론이다. 각 모나드는 홀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며, 그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없다. 모나드는 창문이 전혀 없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서로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있다. 이를 '예정된 조화'라 부른다. 내 생각에 이러한 가정이 호소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것을 통해 숫자상의 모순이 경감되리라 보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마음, 즉 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우파니샤드의 이론을 보면 마음의 다수성은 오로지 겉보기일 뿐이고, 사실은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우파니샤드만의 이론은 아니다. 신비롭게 경험되는 신과의 합일은 통상 이러한 태도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서양에서는(동양에 비해) 강한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우파니샤드 외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것은 13세기 이슬람계 페르시아인 신비가 아지즈 나사피의 글이다. 나는 이 글을 프리츠 마이어의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순간에 영(spirit)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고, 몸은 몸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로지 몸만이 변화를 겪는다. 영의 세계는 하나의 영이다. 그 영은 몸의 세계 뒤에서 빛처럼 서있다가 생명체가 탄생할 때 그 생명체를 통해 빛난다. 마치 창문을 통해 빛이 비치듯이, 창문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많고 적은 양의 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빛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10년 전,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는 '영원한 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이라는 귀중한 책 한 권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가장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범위의 신비주의자들의 글을 가려 뽑은 선집이다. 어디를 펼치더라도 당신은 서로 유사한 아름다운 글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와 시대의 차이를 넘어 기적같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당신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무시무시한 모나드론에 반대하여, 모든 마음이 서로 동일하며 신의 마음과도 동일하다는 신비적인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이 여기 있다. 이러한 동일성론은 의식이 결코 여러 개로 경험되지 않고 하나로만 경험된다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의식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동일한 마음 안에서는 하나 이상의 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계속 말해서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반대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거의 요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이 점이 바로 내가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며, 찰스 쉐링턴(Charles Sherrington) 경의 말을 인용하여 이 점에 관해 결말을 짓고 싶다. 그는 최고의 천재인 동시에 진지한 과학자이다.(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쉐링턴 자신의 말을 빌어 주요한 결론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두 개의 기사를 결합하는 것처럼 두뇌 메커니즘의 공간적 결합이 아니다. ... 이는 마치 두 명의 관찰자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영상을 각각 하나씩 본 후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과 흡사하다. 마치 오른 눈의 지각과 왼 눈의 지각이 각각 홀로 작업을 한 뒤에 심리적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눈은 자신에게 합당하고 상당한 위엄을 가진 독립적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눈

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신적 과정들이 발전해 나와 완전한 지각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것을 생리학적으로 시각적 하위 두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적 하위 두뇌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눈, 다른 하나는 왼쪽 눈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구조적 결합이라기보다는 행위의 동시성으로 인한다.

이 말 뒤에는 아주 일반적인 중요성이 따라 나오는데, 나는 또다시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발췌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몇 가지 형태의 감각에 기반을 둔 준-독립적 하위 두뇌가 존재하는 것일까? 대뇌 피질 안에는 그 오래된 '다섯' 감각이 서로 얽혀 뒤섞이지도 상위의 명령체계 하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도 여전히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각각은 분리된 영역 속에 구분되어 있다. 경험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대량 통합되어 있는 준-독립적 지각의 집합이 마음이라고 보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가? ... '마음'이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신경계는 독재적인 하나의 세포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통합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백만 겹의 민주주의에 공을 들이는데, 그 각 단위가 바로 하나의 세포이다. ... 하위의 생명들로 합성되어 구체화된 생명은, 비록 통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덧씌워진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있으며, 함께 행동하는 생명의 미세한 점들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 그러나 우리가 마음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이런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신경세포가 두뇌의 축소판인 것은 결코 아니다. 신체의 세포조직은 '마음'이라는 어떠한 기미도 떨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단 하나의 독재적 두뇌세포는, 정신적 반응에 대해 대뇌피질의 다중적인 세포관이 하는 것보다 더 통합적인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물질과 에너지는 구조상으로 낱알처럼 보이며, '생명'도 그러하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준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보았다. 살아있는 신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던 웨링턴은 하나의 패러독스와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솔직함과 지적인 진지함으로 이 패러독스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폭로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이나 철학적 문제를 결론으로 더 가까이 몰고 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은 '멋진' 미사여구로 그 문제를 덧씌워 진전을 방해하고 그 모순을 지속하게 한다. 웨링턴의 패러독스 또한 산술적 패러독스, 즉 숫자상의 패러독스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앞부분에서 내가 산술적 패러독스라 이름 붙인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간단히 말해 다수의 마음으로부터 결정(結晶)화된 하나의 세계이다. 웨링턴의 패러독스는 표면상으로 다중 세포의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다. 또다른 방식으로 보면 여러 겹의 하위 두뇌에 근거하는 하나의 마음인데, 그 각각의 하위 두뇌는 그에 합당한 상당한 위엄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하위-마음이라는 개념을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위-마음이라는 것이 다중-마음과 같이 지독하게 끈직한 것임을 알고 있다. 어느 누구의 경험 속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도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마음은 천성적으로 오직 하나이다. 나는 마음들의 전체적 숫자는 단 하나라고 단언한다. 또, 마음은 독특하고 별난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멸이라고 과감히 말하겠다. 즉, 마음은 항상 지금 현재인 것이다. 마음에게는 정말로 이전과 이후가 없다. 오로지 지금만이 존재하며, 그 지금 속에 기억과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언어가 이를 표현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지금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겠다. 과학이 아니라 종교를...

하지만 우리는 하위-마음이라는 것이 다중-마음과 같이 지독하게 끈직한 것임을 알고 있다. 어느 누구의 경험 속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도 상상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다.

웨링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혹성의 최근의 산물이다.”

당연히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인간의’ 라는 말이 빠져버린다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홀로 세계의 형성을 되비추는 의식적 마음이 이 '형성' 과정 중 오직 어느 한 시기에만 모습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것, 아주 특별한 생물학적 장치(두뇌)와 관련되어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엉뚱하고 기묘하게 보일 것이다. 이 두뇌 장치는 그 자체가 어떤 생명 형태의 자기 보존을 조장하는 임무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보존과 번식을 도와준다. 이 생명 형태들은 뒤늦게 등장한 것이며, 이전에는 그러한 특별한 장치(두뇌) 없이 스스로를 유지, 보존했던 생명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 중 단지 일부 종(種)만이 '두뇌 갖추기'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작업이 있기 전에는 그 모두가 텅 빈 객석 앞에서의 공연이었던 말인가? 아니,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계를 그렇게 부를 수조차 있을까? 고고학자가 오래 전에 사라진 도시나 문명을 재건축할 때, 그는 과거 인간의 생활과 그 당시 거기에서 펼쳐졌던 행동, 감흥, 생각, 느낌, 인간의 기쁨과 슬픔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수 백만 년 동안 그 어느 마음도 알고있지 않았고 지켜보지도 않았다면, 그 세계는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까? 세계의 형성이 의식적인 마음 안에 반영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투적인 어구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자. 세계는 오직 한번 주어진다. 반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래의 상과 거울의 상은 동일하다.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진 세계는 우리의 개념작용(표상表象)일 뿐이다. 경험은 우리에게 그밖에 다른 어떤 실마리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버클리(Berkeley)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화가는 때로 그의 큰 그림 속에, 시인은 그의 긴 시 속에 허세부리지 않는 조연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오딧세이'를 쓴 시인은 눈 먼 음유시인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파리아키아인의 회당에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패배한 영웅을 감동시켜 눈물짓게 한다. 같은 식으로 우리는 독일의 대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에서 오스트리아 땅을 횡단하는 장면 가운데 한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서사시 전체의 작가로 생각된다. 뒤러의 '모든 성인들'이라는 그림 속에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삼위일체의 주위에 두 집단의 신도들이 기도를 하며 모여 있다. 위 쪽에는 축복 받은 이들의 집단이, 지상에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

후자의 집단 속에는 왕, 황제들과 교황들이 있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빠뜨리는 편이 더 나올 지도 모를 겸손한 인물로 그려진 화가 자신의 초상도 있다.

나에게는, 이것이 마음의 이중 역할에 대한 최선의 비유인 것 같아 보인다. 즉 한편으로 마음은 전체를 만들어낸 화가이지만, 또 한편 완성된 작품 속에서 없어도 좋을 중요치 않은 액세서리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전형적인 이율배반의 모순들과 마주치고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이 모순들은 다음의 사실에 기인한다. 즉 세계의 상을 창조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 세계에 포함시키면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세계관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은 그 세계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마음을 세계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불합리성을 낳는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물질적 세계상 속에는 인식주체를 형성하는 감각적인 측면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인식주체의 모델은 색채와 소리가 없으며 만져질 수가 없다. 같은 이유로, 과학의 세계에서는 의식적으로 고찰하고 지각하며 느끼는 주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 있다. 우선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그것은 전체적인 시야와 의미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모두는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끼여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아이들이 색칠 안된 그림본에 색을 칠하듯 누군가가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해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계 모델 속에 집어 넣어지는 모든 것은 싫든 좋든, 사실에 대한 과학적 언명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전체적 세계관과 의미에 관련해, 과학적 연구가 전혀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럽다.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목적이 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계속 진행 중인 이 공연은 분명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이 말하는 것은 명백히 부조리하다. 마치 마음을, 그것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 세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이 마침

내 식어버리고 지구가 눈과 얼음의 사막이 될 때 함께 죽어 없어질 그 세계에 의 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다.

이제 악명 높은 과학의 무신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그것은 같은 논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과학은 무신론이라는 비난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모든 인격적인 것을 희생하고서야 접근 가능한 세계모델에서, 어떤 인격적인 신도 그 일부를 형성할 수는 없다. 신을 체험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감각인식 또는 자신의 인격만큼이나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안다. 그와 같이 신도 또한 시-공간 상에서는 사라지고 없다. 정직한 자연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시간과 공간 속 어디에서도 신을 찾아내지 못한다.' 라고.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다' 라는 교리문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신아(神我 : The I that is God)

이는 심각한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과학적인 측면을 걱정과 열정 없이 상세히 설명하는 쪽을 택해왔다. 여기에다 이제 나 자신의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되었던 증거에 따라, 마음의 활동 또는 자아-의식이나 다른 어떤 활동들에 상응하는, 생명체 몸속의 시-공간적 사건들은(그들의 복잡한 구조와 받아들여지고 있는 물리-화학의 통계적 설명도 고려하면) 비록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통계적-결정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학자에게는 '양자적 불확정성' 이 생물학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점을 일부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하여 강조하고 싶다. 양자적 불확정성은 다만 감수분열, 자연적 돌연변이, 엑스선으로 유도된 돌연변이 등에서 그들의 우연적인 특성을 강화할 뿐이다. 그리고 이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백하고 잘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이를 사실로 간주해보자. '자신을 순수한 메커니즘(기계장치)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 불쾌한 느낌이 없다면, 편견 없는 생물학자는 모두 그렇게 해주리라 믿는다. 자신을 순수한 메커니즘으로 보는 것은 직접

적인 자기성찰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의지에 반대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은 아무리 다양하고 서로간 공통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는 서로 모순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음의 두 전제로부터 모순되지 않고 올바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나의 몸은 순수한 메커니즘으로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직접 경험을 통해 내가 몸의 동작을 지시하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 동작의 결과를 예견하며, 그 결과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여 그것에 대해 나는 완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두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추론은,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원자들의 동작'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말이다. 이때의 '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 즉 '나'라고 말하거나 느낀 적이 있는 모든 의식적인 마음을 말한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때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제한되는 문화적 환경 안에서는, 이 결론에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현을 던진다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다.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라는 말은 불경스럽기도 하고 미치광이의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잠시 무시하고, 위의 추론이 신과 영원불멸을 일거에 증명하면서 생물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결론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자.

이 통찰은 그 자체로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최초의 기록이 2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위대한 우파니샤드에서부터 아트



만과 브라만이 동일하다는 인식(개인의 자아가 무소부재하고 전지한 영원한 자아와 같다는 것)이 인도인의 사상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코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의 정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베단타(Vedanta) 학자들은, 입으로 낭송하는 것을 배운 이후, 가장 위대한 이 사상을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동화시키고자 분투하였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수많은 세기의 신비가들은 독립적으로 그러나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각자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묘사해왔으며, 그들의 말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나는 신이 되었다.'

서구의 관점에서 그런 사상은 여전히 낯선 것으로 남아있다. 비록 쇼펜하우어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생각과 기쁨이 산술적으로 하나임을 알게 되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말이다. 그들의 생각과 기쁨이 단순히 유사하거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감정적으로 너무나 열렬하여 명쾌한 사고에 몰두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신비가와 아주 많이 닮아있다.

좀 더 나아가 보자. 의식은 결코 다수로 경험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로만 경험된다. 심지어 분리된 의식이나 두 인격이 번갈아 바뀌는 다중인격과 같은 병적인 경우에도 그 의식들이 결코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꿈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 인격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이 된다. 우리는 그들 중 하나이다. 그 하나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종종 다른 이의 대답이나 반응을 열렬히 기대하기도 한다.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말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바로 우리 자신이 통제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우파니샤드 저자들에 의해 그토록 단호하게 반대되는 다수론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의식은 제한된 물질의 영역인 몸의 물질적 상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춘기, 노쇠, 노망 등등 신체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려해보라. 또는 열, 술 취함, 마약, 두뇌 손상 등등의 영향을 생각해 보라. 자, 유사한 몸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식 또는 마음의

다수화는 아주 그럴듯한 가정처럼 보인다. 아마도 단순하고 소박한 모든 사람들과 대다수의 서구 철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는 거의 즉각적으로 몸의 수만큼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몸처럼 죽어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불멸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는다. 죽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하기 싫은 것이며, 반면 불멸의 존재라는 생각은 다수론의 근거를 잊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의문들이 있어 왔다: 즉 동물들도 영혼이 있는가? 심지어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남자에게만 있는가라는 의문도 있었다.

비록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러한 결과들은 서구의 모든 공식적 신념들에 공통되는 다수라는 가정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조잡한 미신을 버림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의 다수론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유지한다면, 영혼을 소멸하는 것으로, 각각의 몸과 함께 사라지는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순진한 생각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난센스로 기울어지는 게 아닐까?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은 의식이 단 하나라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다수로 보이는 것은 속임수(인도어로 마야MAYA)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다른 측면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환영은 거울 전시장에 가보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고리상카르와 에베레스트라는 산이름은 다른 계곡에서 본 똑같은 봉우리임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런 간단한 인식의 수용을 방해하는 꾸며낸 유령 이야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 창문 바깥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는 그 나무를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왔다. 최초의, 비교적 간단한 단계 외에는 연구되지 않은 어떤 교활한 장치에 의해서 진정한 나무는 그 자신의 이미지를 나의 의식 속으로 던지게 되며, 그 이미지가 바로 내가 인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만일 당신이 내곁에서 같은 나무를 바라본다면, 그 나무는 당신의 영혼에게도 하나의 이미지를 던지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나무를 보고 당신은 (나의 나무와 현저하게 유사한) 당신의 나무를 본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이 터무니 없는 생각의 책임은 칸트(Kant)에게 있다. 의식을 유일

한 것으로 보는 사고의 질서 속에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편리하게 대체된다. “분명 단 하나의 나무가 존재하며, 모든 이미지는 유령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의 총합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지니고 있다. 그 단위는 다른 어느 누구의 그것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나’ 라고 한다. 이 ‘나’ 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보면, 당신은 그것이 낱알의 데이터(경험과 기억)의 집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경험과 기억이 모아지는 캔버스이다. 그리고 가까이서 조사해보면 당신이 ‘나’ 라는 말로 뜻하는 바가 경험과 기억이 그 위에 모아지는 바로 그 바탕재임을 알게 된다. 당신이 먼 나라에 가게 되어 친구들 모두를 볼 수 없게 되고 머지않아 그들을 잊게 되면, 당신은 새 친구들을 사귀어 그들과 함께 예전 친구들과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삶을 누리게 된다. 새로운 삶을 누리는 동안 당신이 예전의 삶을 회상한다는 사실은 점점 더 중요치 않게 된다. 당신은 제 삼자에게 ‘소년기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며, 분명 당신에게 더 생생히 살아있고 더 친숙할 것이다.(그만큼 소년기의 당신은 죽은거와 같다) 그러나 중간 휴식은 한번도 없었다. 죽음은 결코 없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일 숨씨 좋은 최면술사가 이전의 모든 기억을 말끔히 씻어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가 당신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탄해야 할 개인적 존재의 소멸은 없다.

또한 영원히 없을 것이다.

신비주의자의 비전

철학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점은 관찰하고 사고하는 개인이 시간과 공간 상에 다수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일 모든 사건이 하나의 의식에서 발생한다면, 전체의 상황은 극도로 단순할 것이다. 그러면 간단한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고, 이것은 아무리 다른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직면하고 있

는 그러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지력에 의한 논리정연한 사고로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해답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성은 오직 걸 모습일 뿐이며,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 기본적 교리로 되어 있는 베단타 철학은 많은 유추법으로 이를 설명하려 애써왔다. 그 중 가장 매력 있는 것은 다면체의 수정인데, 이 수많은 면을 가진 수정은, 하나인 대상을 수많은 작은 영상으로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그 대상을 여러 개로 만들지는 않는다. 오늘날 지식인들은 회화적 유추를 철학적 통찰로서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치 않다. 논리적 추론만을 고집할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논리적 사고로, 최소한 이 정도를 밝혀내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즉 논리적 사고를 통해 현상의 근본을 파악하는 것은 심중팔구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논리적 사고는 그 자체가 현상의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현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그것의 적합성 여부가 엄격히 입증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화적인 묘사를 거부해야만 하는가 자문해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경우 논리적 사고는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데려가지만 그 후엔 곤경에 빠뜨려버린다. 이렇게 사고의 선상에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그리로 끌려들어가고 마는 영역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 사고가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한 중심부로 모여드는 방식으로 겨우 설명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의 세계상에 대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출발해 나온 엄밀하고 애매하지 않은 필연성이라는 기준으로는 판단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이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 없이 많으며, 이것은 오랫동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당신을 무에서부터 그렇게 갑자기 불러내어 당신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잠시동안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나중에 현대의 사고에 담긴 특정 거짓들을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베단타의 관점을 지지하는 문구를 인용할 것이다. 우선은 그곳으로 이끄는 경험의 구체적인 상을 그려보자. 다음의 내용에서, 초기에 묘사된 특정 상황은 적합한 다른 것

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산지대 시골 마을의 길 옆에 벤치가 하나 있고, 거기 당신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자. 주위에는 온통 초원으로 된 산비탈이 있고 바위들이 듽성듬성 뚫고 올라와 있다. 계곡의 맞은편 산비탈에는 작은 바위들이 펼쳐져 있고 키 낮은 오리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다. 계곡의 양 옆쪽에서 가파른 숲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가 없는 초원이 나타난다. 꼭대기가 빙하로 덮여있는 웅대한 봉우리가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위로 솟아오르며 당신을 마주하고 있다. 그 봉우리의 부드러운 눈 발과 딱딱한 모서리의 바위면이 바로 그 순간 가라앉은 태양의 마지막 햇살에 비쳐 부드러운 장미빛으로 빛나고 있다. 이 모두가 청명하고 창백하고 투명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경이롭게 펼쳐져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에 따르면,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작은 변화를 제외하고는 수 천년 동안 그대로 거기에 존재해 왔다. 잠시 뒤에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숲과 바위와 하늘은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수 천년간 변치 않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당신을 무에서부터 그렇게 갑자기 불러내어 당신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광경을 잠시동안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존재를 위한 조건들은 바위들 만큼이나 거의 오래된 것이다. 즉 수 천년 동안 남자들은 애쓰고 고통받고 자손의 씨를 뿌려왔고, 여자들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왔다. 아마도 백 년 전에는 다른 사람이 이 지점에 앉아 있었을 것이며 그도 당신처럼 경외와 동경을 마음에 품고 빙하 위의 저물어가는 햇살을 응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도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며 당신처럼 고통과 짧은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당신들과는 다른 누구였을까? 그가 바로 당신이 아니었을까? 당신의 이 '나' 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 다른 누군가 아닌 바로 당신으로 탄생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누구' 라는 것이 과연 어떤 분명하고 명쾌한 과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현재의 당신 어머니가 다른 누구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당신의 아버지도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하면 과연 '당신' 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당신은 부모들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게 될까? 또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의 아버지 안에서, 수 천년 전에도? 만약 그렇다고 해도 왜 당신은 당신의 형이 아니며, 당신의 형은 당신이 아닌가? 왜 당신은 사촌, 오촌 중의 하나가 아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동일한 데도, 당신이 이 사람들과의 차이를 집요하게 찾아 나서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번뜩하는 순간 갑자기 당신은 배단타의 근본적 신념이 심오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지도 모른다. 당신이 '나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이 지식, 느낌, 기호의 통합체가 한 순간 무에서부터 튀어나와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영원하며 불변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지각 있는 존재 속에서 숫자상으로는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처럼, 당신이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의 일부이며 그 존재의 한 측면 또는 변형된 형태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똑같은 곤란한 질문에 봉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어느 부분, 어느 측면인가? 객관적으로 무엇이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 짓는가? 아니다. 보통의 이성으로 생각해낼 수 있듯이, 당신, 그리고 당신과 같은 다른 모든 의식적 존재들은 하나의 전체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전체적 존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라문들이 성스럽고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참으로 간단하고 명쾌한 문구로 표현하는 바이다: 타트 트밤 아시(Tat tvam asi) '이것이 그대이다. 또는, 나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 나는 아래이자 위이다. 나는 이 세계 전체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머니 지구와 당신이 서로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땅 위에, 어머니 지구 위에 쭉 뻗고 드러누울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머니인 지구만큼 견고하고 상처 받지 않는 존재이다. 사실은 천 배 더 견고하고 더 강한 불사의 존재이다. 그녀가 미래에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 틀림없지만 반면, 그녀는 또 당신을 새로운 삶과 고난 속으로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매일 그녀는 당신을 탄생시키고 있다. 한번이 아니라 수 천번에 수 천번을 거듭하여 매일매일 당신을 집어삼키는 것과 꼭 같이

말이다. 영원히 그리고 항상, 오직 지금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똑같은 지금만이. 현재는 끝이 없는 유일한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Quantum Question>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저자 : 어윈 슈뢰딩거(Erwin Schroedinger; 1887-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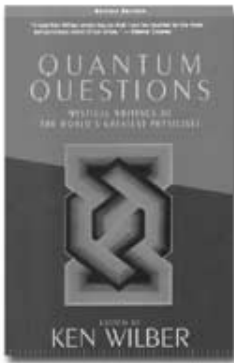
하이젠베르크와 다른 이들이 행렬역학을 발전시키고 있던 때와 거의 동시대에 슈뢰딩거는 독립적으로 '파동역학'의 형태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곧 행렬역학과 동등한 가치가 있으면서도 많은 면에서 더욱 간단하고 우아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므로 현대 양자역학의 중심이 되고 양자역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수학적 도구가 된 것은 바로 '슈뢰딩거의 파동방정식'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1933년에 노벨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

■ **역자 : 박인수**

참선, 단전호흡, TM-시디 코스, 아보타 마스터코스 등을 거쳐 수행의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는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다. 명상법과 학습법의 연결,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영어학습법'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Quantum Question

Ken Wilber 편저 / SHAMBHALA 간 / US\$ 14.95



과학과 종교는 진리탐구에 있어 종종 적대자로 보여져왔다.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20세기의 선구적 물리학자들이 신비주의적 세계관에 공감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놀랄 것이다. 이 책에서 켄 윌버는 8인의 위대한 과학자 -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제임스 진, 파울리, 막스 플랑크, 에딩턴 - 의 저작을 한데 묶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다루어보기 위해서이다. 즉 현대물리학의 발견물은 고대 신비가의 가르침을 지지하는가?, 진리탐구를 향한 과학적 방법과 목상의 테크닉은 비교될 수 있는가? 실재를 탐구하는 이 두방법 사이에 진정한 '투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서 켄 윌버는 과학과 종교사이에 참된 화해의 길을 제시한다.

켄 윌버의 저작은 널리 읽히며 현재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중의 한사람이다. 최근 그는 "A Theory of Everything and Integral Psychology"라는 책을 써서 호평을 받고 있다.

■ 구입처 : Shambhala publication / www.shambhala.com / ggaetz@shambhala.com